

書藝의 道는 자연과 妙合되어야 한다. 무릇 자연계와 인류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체의 動態와 靜態의 사물은 모두 서예가로 하여금 일종의 啓示를 받게 하고 遷想妙得을 자아내게 한다.

서법예술이란 性情을 表達하고 그 형세와 자태로서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또한 뜻이 종횡으로 치달고, 심중에 있는 회포를 발산하게 한다. 이는 자연과의 유통으로서 성령을 발로케 한다.

향산곡은 開元寺의 始思堂에서 寓居할 때 恒容 강산을 바라보고 느낀 興懷를 매양 초서로 표현함으로써 江山之氣를 얻었고, 雷簡夫는 茄陵江의 넘쳐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마음에 느낀 것을 筆下에 힘차게 불어 넣어 得勢하였다고 한다.

옛날의 서가들은 똑 끊어진 언덕과 몽그러진 봉우리의 험악한 모습과, 매우 위태로운 절벽에 겨우 부지하고 있는 나무와 바위의 형태를 글씨의 姿態에 비유하여 險絶의 긴박감을 나타 내 도록 하였으며, 한밤중에 明滅하는 못 별들의 錯落한 별자리를 보고 章法의 布局을 깨달았으며, 大河의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觀照하여 曲勢로서 直勢筆法을 터득하였다.

龍跳天門, 虎臥鳳闕 “警沙坐飛, 孤蓬自振, 飛鳥出林, 驚蛇入草” 등은 모두 動靜의 필법을 형용하였으며, 狂草의 대가 張旭은 公孫大娘의 劍器舞를 보고 초서법의 低昂回翔하는 필세를 깨우쳤으며, 文藝可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뱀이 다투는 것을 보고 옛 사람의 필의를 깨달았으며, 張長史는 짐을 진 사람들이 다투어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揖讓參差의 법을 알았으며, 角羊縉은 陳을 치고 전투하는 모습을 보고 兩夾雪의 章法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상의 서법을 터득한 고사들은 모두 자연계와 인간생활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을 서예가의 영양소로 흡취하여 서법의 眞諦를 깨달아 드디어 그들의 서품이 五彩가 번쩍이고 天機가 流蕩하는 하나의 完美, 和諧로서 자연미의 예술경계와 妙合됨을 表出시켰다. 비록 쓰여진 글자의 造形은 紙上에 있지만 작가의 神情과 意趣는 필독 이외의 자연환경의 변화하는 일체의 모습을 자연스레 합일되어 서예의 妙用을 얻는 秘方을 얻은 것이라 하겠다.

무릇 글씨와 兵法은 같다. 양자가 모두 승리로 제압하는데 있다.

병법은 常陣이 없고, 글씨는 政刑이 없다. 막상 전투에 임하여는 결기하여야 되며, 글씨를 써내려 갈 때에는 필세를 살펴야 하는데 전략과 권모술수를 교묘히 계산하여 만전을 기해야 하고 陣勢에 따라 모름지기 변해야 하는데 行伍가

문란하면 아니 된다. 글자와 장법의 형국도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글자의 기본 體格을 벗어나면 절대로 아니 된다. 자연현상으로 비유하건데 靑天白雲, 和風清露, 朗星皓月, 寒雪暑雷, 는 造化의 生機로서 이를 常이라 하며, 迅霆激電, 霖雨颶風, 夏雹冬雷, 揚沙霾霧는 陰陽의 殺機로서 그것을 變이라 한다.

장수의 도는 권모와 지략을 교묘히 계산하여 陣中 帷幄에서 運勢를 籌痺하고 결승은 천리 밖에서 이루어진다. 서예의 도는 뜻이 붓보다 앞서서 구상되고 법도 내에서 妙法을 들어내야 하나, 운필하는 과정 중에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변법을 시행하여야한다

즉, 장수의 도리는 전장에 임하여 형세에 따라 기운을 승세로 몰고 서법의 도는 필세에 따라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字法과 兵法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 이는 항목의 <書法雅言>의 일단이다. 또한 서예의 용필에서는 필법이 精熟하면서

필세가 迅疾한 것을 能速이라 한다. 능히 빨라야 할 때 빨리 운필하고 뱃섬을 취하면 때때로 의외의 점획을 나타내어 出神入化의 妙境에 들어간다. 能速不速을 賞會하는 것은 느린 운필로서 연마함을 취하여 용필이 자연적으로 배회로운 모습이 되어 태도가 자유자재로와 점획이 정통하게 이루어진다.

능히 빠르지 않아야 할 때 빠르게 운필하는 것을 狂馳라 하는데 광치하면 곧 任筆爲體되고 형세가 온전치 못하다. 마땅히 느려서는 안 되는 곳에서 느리게 운필하면 淹滯라 하는데 聚墨成形만 되어 骨肉이 鈍弱하고 필세가 凝滯되고 血脉 막혀서 흙으로 빚고 나무로 깎은 허수아비 같아서 생기가 전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횡 斜直으로 빠르지 않게 행필하고 그침 없이 느릿느릿 가면서 팔은 붓을 멈추지 않고, 필봉은 지면은 지면위에 바짝 붙어서 휘운하여야한다. 이러한 운필 자세로 動靜結음이 능숙하게 되면 剛柔가 互濟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